

# 조선후기 기행 양식에 나타난 여성 자아의 존재 양상

이승희\*

## 차 례

1. 머리말
2. 여행 체험과 여성 자아의 양상
  - 2.1 비일상적 자아의 발견
  - 2.2 규범적 여성 자아의 재확인
3. 여행, 그 이후
4. 여성 기행 양식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조선후기는 유교적 예법이 강화된 시기로써 여성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몇몇 여성들이 여행 체험을 했고, 그 기록을 남겼다. 비록 그 여행의 대개가 남성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거나 또는 가족 행사 차원으로 이뤄진 것이지만 규방에만 매여 있던 여성들에게는 평생에 남을 경험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비일상적인 체험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여행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게 하면서 ‘비일상적인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한 여행은 여성을 가족 안으로 환원시키는데,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규범적 여성 자아의 재확인’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행에 대한 욕망과 규범적 행동 사이에서 갈등

\* 인하대 국어국문과 대학원 박사과정

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여행에서 돌아온 여성들은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한다. 일상으로 돌아온 여성들은 여행 이전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여행 이전과 이후의 여성 자아는 질적으로 변화한 상태라고 짐작해 보았고, 그 근거로써 이 여성들의 여행 기록을 들었다. 여성들의 여행 기록은 여행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바 자아를 재발견하는 행위로서의 글쓰기이며, 자신의 삶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글쓰기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여행 기록은 ‘실존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조선후기, 여행 기록, 여성자아, 실존적 글쓰기

## 1. 머리말

조선후기는 통치이념으로 채택된 유교적 실천윤리가 제도적으로 확대·강화된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여성들의 삶 전반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특히 유교의 남녀유별 논리는 남녀의 역할 및 공간을 철저하게 분리했고, 여성의 활동 공간을 사적 공간인 ‘집 안’으로 엄격하게 한정하였다. 이로써 조선후기 사대부가 여성의 외출은 전시대에 비해 더욱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그나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여성들의 ‘집 밖’ 체험으로는 신행(新行), 화전놀이, 이사(移徙), 제사나 상(喪)으로 인한 친가 방문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규중에만 매여 있던 여성들에게 ‘집 밖’ 체험은 일상의 공간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분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출입이 자유로웠던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집 밖’ 체험은 더욱 특별한 것이었을 수 있다. 이들의 ‘집 밖’ 체험은 친가(親家)나 구가(舅家) 방문 등 일상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드물게는 본격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도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 여성에게 있어 여행 체험은 매우 드물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집 밖’을 나가는 경험을 하고난 뒤 나아가 이를 기록으로 남긴 여성들의 작품이 남아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 기록 들은 여행 체험이 여성의 내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그동안 여성의 여행 기록에 대한 연구는 작자 고증<sup>1)</sup>, 내용 분석<sup>2)</sup>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최근에 와서야 여성 문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조선후기 여성의 여행 기록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sup>3)</sup> 김수경은 『금행일기』와 『부여노정기』 등 여행을 소재로 한 규방가사에 여행 자체보다는 여성들의 가문 의식이 도드라져 나타나 있음을 밝혔고, 유정선은 『금행일기』에 여행 중 작자의 내면적 갈등이 드러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규범에 대한 ‘균열의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했다. 이러한 논의는 여행 체험이 전통시대 여성의 자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려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 연구는 개별 작품 연구로서 규방가사에

1) 『의유당일기』의 작자는 작품을 처음 소개하는 이병기에 의해서 연안김씨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연성에 의해 의령 남씨 설이 제기 되었으며 유탉일이 의령 남씨로 확정하는 작업을 했다. (이연성, 『意幽堂日記의 文体考』,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73; 유탉일, 『의유당 일기의 작자에 대하여』, 『수필문학연구』, 국어국문학회, 1980)

2) 『금행일기』, 『부여노정기』는 작자의 개인사와 연관 지어 작품분석이 이루어졌다. 『부여노정기』는 동일 작자의 작품인 『쌍벽가』의 연장선에서 작자의 가문의식을 중심으로 분석 되었다. 노태조 교주, 『錦行日記』(정훈출판사, 1991) ; 김수경, 『창작과 전승 양상으로 살펴 본 <쌍벽가>』, 『규방가사의 작품 세계와 미학』(역락, 2002), pp.76~99.

3) 김수경, 『<부여노정기>-최초의 기행 소재 규방가사』, 『규방가사의 작품 세계와 미학』, (역락, 2002), pp.97~115 ; 유정선, 『<錦行日記>에 나타난 기행체험의 의미』, 『규방가사의 작품 세계와 미학』, (역락, 2002), pp.195~219 ; 김수경·유정선, 『<이부인기행가사>에 나타난 19세기 여성의 여행체험과 그 의미』, 『한국고전문학연구』 4 (2002) ; 백순철, 『<錦行日記>와 女性의 여행체험』, 『한성어문학』(2003. 8)

한정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앞선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에 기대 조선 후기 여성의 여행 기록<sup>4)</sup> 전반으로 논의를 확장해 보고자 한다. 조선후기라는 시대적 제약 속에 이루어진 여성들의 여행에 나타나는 공통된 의식은 무엇인가, 의식의 개인차는 있는가, 개인차의 이유는 무엇인가 등등 여성들의 여성 체험과 자아의 양상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대상<sup>5)</sup>을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다.

〈조선후기 여성 여행기록 목록〉

작품명	지은이	창작 및 탈고 연대	장르	표기 문자	작품소재	여행 동기 / 여정
의유당일기 (意幽堂日記)	의령 남씨 (1727~ 1823)	1772	수필	한글	『조선역대여류문집』, 을유문화사, 1955.	남편부임행차/서울→함흥
부여노정기 (夫餘路程記)	연안 이씨 (1737~ 1815)	1802	가사	한글	임기중, 『역대가사문학전 집』 11, 여강출판사, 1988.	아들부임행차/안동 하회→부여

4) 본고에서는 ‘기행문’이라는 용어 대신 ‘기행 양식’ 및 ‘여행 기록’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행문이라고 부를 때, 기행 가사와 기행 산문, 유산록, 유기 등 다양한 형식의 여행 기록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행문’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5) 조선후기를 포함하여 그 이전 시대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성의 여행 기록은 다음 작품들뿐이다. 각 작품은 다음 자료를 저본으로 하였으며, 인용 면수는 다음 자료들의 면수를 나타낸 것이다.

강한영 교주, 『의유당일기·화성일기』(신구문화사, 1974)(『의유당일기』에는 「낙민루(樂民樓)」, 「북산루(北山樓)」, 「동명일기(東溟日記)」, 「춘일소흥(春日消興)」, 「영명사 득월루 상량문(永明寺得月樓上樑文)」이 있는데, 이 중 앞의 세 작품이 여행 기록에 해당하므로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하 『의유당일기』는 이 세 작품을 통칭한다); 노태조 교주, 『錦行日記』(정훈출판사, 1991); 권영철, 『夫餘路程記 研究』, 『국문학연구』 4(효성여자대학교, 1973), pp.38~41; 임기중, 「이부인기행가사」, 『역대가사문집』 16(여강출판사, 1988) pp.31~62; 이혜순·정하영 역편, 「김금원(金錦園)의 산문」, 『한국고전여성문학의 세계』(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pp.372~445.

금행일기 (錦行日記)	은진 송씨 (1803~ 1860)	1845	가사	한글	사재동 所藏本	시숙의 공주부임/ 충남 논산→공주
호동서낙기 (湖東西洛記)	김금원 (1817~?)	1850	수필	한문	연세대 所藏	① 자발적/원주→충북제천→금강 산(내·외금강)→통천(관동팔경)→ 경성 ② 남편부임행차/ 의주
이부인기행가사	미상	1821 혹은 1881	가사	한글	임기중, 『역대가사문학전 집』 16, 여강출판사, 1988.	알 수 없음/충북 청주 덕평→전남 나주 사랑면 회진촌

## 2. 여행 체험과 여성 자아의 양상

### 2.1 비일상적 자아의 발견

규방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해오던 여성들에게 여행이란 전혀 새로운 혹은 낯선 공간적 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첫 번째 의의가 있다. 이 같은 여행이 조선후기 여성들에게 드문 일이었음을 감안할 때, 새롭거나 낯선 환경과 대면하게 된 여성들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후기 여성에게 개인의 욕망을 공공연히 표출하는 것은 금기시 된 일이었으며, 욕망뿐 아니라 기쁨, 슬픔, 고통 등 자기 내면의 감정도 표출하기 보다는 안으로, 속으로 삭이도록 권장되었다. 그런데 규범적인 여성으로서의 삶에 충실해 왔던 이들이 여행 도중 규범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구경에 대한 욕심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유당일기』의 의령 남씨는 1769년 8월 24일에 서울을 출발하여 9월 2일 함흥에 도착한다. 의령 남씨가 함흥으로 간 이유는 남편 신대손이 함흥관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남씨가 내행으로 동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의령 남씨는 남편으로 인해 함흥으로 갈 수 있었으나 함흥 내에서의 여행 체험은 주로 의령 남씨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상거(相距)가 오십 리라 하니, 마음에 중란(中亂)하되 기생들이 못내 칭찬하여 거룩함을 일컬으니, 내 마음이 들썩여 원님께 청(請)한대, 사군(使君)이 하시되 ‘여자의 출입(出入)이 어찌 경(輕)히 하리요’ 하여 뇌거 불허(牢拒不許)하니 하릴없어 그쳤더니, 신묘년(辛卯年)에 마음이 다시 들썩여 하 간절히 청하니 허락하고 (『동명일기』, p.20)

위 예문은 의령 남씨가 동명의 일월출이 볼 만하다는 소문을 듣고 남편에게 보러 가기를 요청하는 장면이다. 의령 남씨의 첫 번째 요청은 여자의 출입이 가벼울 수 없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허락받지 못한다. 그런데 한 번 거절당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령 남씨는 2년 뒤 다시 동명의 일월출 보기를 요청하여 드디어 동명으로 향하게 된다.

그후 땃혀 다시 보기를 계교(計巧)하되 사군이 엄히 막자라니 감히 생의(生意)치 못하더니, 임진(壬辰) 상척(喪戚)을 당하여 종이를 서울 보내어 이미 달이 넘고, 고향을 떠나 사 년이 되니, 죽은 이는 이의(已矣)거니와 생면(生面)이 그림고, 종이 조차 보내어 심우(心憂)를 도우니, 회포(懷抱)가 자못 괴로운지라. 원님께 다시 동명(東溟) 보기를 청하니 허락지 아니하시거늘 내 하되, ‘인생(人生)이 기하(幾何)오? 사람이 한 번 돌아가 매 다시 오는 일이 없고, 심우와 지통(至痛)을 쌓아 매양(每樣) 울울(鬱鬱)하니, 한 번 놀아 심울(心鬱)을 푸는 것이 만금(萬金)에 닿여 바꾸지 못하리니, 덕분(德分)에 가지라’하 비니, 원님이 역시 일출(日出)을 못 보신 고로 허락, 동행하자 하시니, 구월 십칠일로 가기를 정하니 (『동명일기』, pp.24~25)

동명을 다녀온 의령 남씨는 이후에 다시 동명 가기를 요청하는데, 이전 여행에서 일기(日氣)가 나빠 일월출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의 예문을 보면, 남편은 역시나 의령 남씨의 청을 엄하게 거절한다. 이때, 의령 남씨의 반응은 예상 밖인데, 남편에게 ‘인생이 기하오?’라고

따지듯 물으면서 자신이 여행을 가야하는 이유를 토로하며 남편을 설득하는 것이다. 남편을 향한 의령 남씨의 이 같은 태도는 유교적 규범에 분명 어긋나며, 의령 남씨가 일월출을 제대로 못 본 것이 ‘맺혀’ 있었다는 데에서 작자의 여행에 대한 욕심이 강한 어조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의령남씨는 왜 이토록 여행에 집착하는 것일까? 우리는 의령 남씨의 이전 여행 체험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음에 규중 소녀자물 아주 잊히고, 허리에 다섯 인(印)이 달리고 문무(文武)를 겸전(兼全)한 장상(將相)으로 훈업(勳業)이 고대(高大)하여, 어디 군공(軍功)을 이루고 승전곡(勝戰曲)을 주(奏)하며 태평궁궐(太平宮闕)을 향하는 듯, 좌우 화광(火光)과 군악이 내 호기(豪氣)를 돕는 듯, 몸이 육마거(六馬車) 중에 앉아 대로에 달리는 듯 용약환희(勇躍歡喜)하여 오다가 관문(官門)에 이르러 아내(衙內) 마루 아래 가마를 놓고 장한 초롱이 군성(群星)이 양기(陽氣)를 맞아 떨어진 듯 없으니, 심신이 황홀하여 몸이 절로 대청에 올라 머리를 만져 보니 구름머리 꾸은 것이 고아 있고, 허리를 만지니 치마를 돌렸으니, 황연(晃然)히 이 몸이 여잠을 깨달아, 방중에 들어오니 침선(針線) 방적(紡績) 하던 것이 좌우에 놓였으니 박장(拍掌)하여 웃다. (『복산루』, pp.16~17)

의령 남씨는 밤이 늦도록 복산루 구경을 한 후 수십 인이 횃불과 청사초롱을 밝히고 풍류를 연주하면서 돌아오는 가마 안에서 새로운 느낌을 경험한다. 의령 남씨는 잠깐이나마 규중 여자임을 잊고 대신 승전(勝戰)하고 돌아오는 문무를 겸전한 장군이 된 듯 상상한 것이다. 의령 남씨의 이 상상적 체험은 여행에 대한 만족감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만족감의 이면에는 독자에게 규중의 부녀자이기 때문에 느꼈을 답답함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여행으로 인한 이 상상적 체험은 의령 남씨에게 규중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여행의 즐거움을 일깨워준 사건

으로 기억되고 이후 여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계기가 된다. 다시 말해 ‘집 밖’에서 느낄 수 있었던 자유로움이 의령 남씨로 하여금 여행을 하도록 부추긴 것이며, 남편에게 거절당하면서도 여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결국 의령 남씨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동명으로의 두 번째 여행이 가능해진다.

『금행일기』는 은진 송씨가 1845년 3월 시숙 권영규의 초청으로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 충남 논산에서 공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한 체험을 서술한 것이다. 공주 관아에 도착한 은진 송씨는 의령 남씨와 마찬가지로 구경에 대한 욕심을 서서히 드러낸다.

은진 송씨의 구경에 대한 욕심은 우선 기생점고를 구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존당(尊堂) 신성(晨省) 호은 후의 점고(點考) 구경 하라하니 행낭(行廊)의 가 본다하니 종들 문져 전비(展拜) 호여 비부가지 치운 후의 데형(弟兄) 숙달(叔姪) 모혀서서 제제유유 나아가니 등문(中門) 밧 막 나서며 구경쳐는 지척(咫尺)이요 행낭(行廊)은 게서 머니 다 각각 틈을 어더 은신(隱身)호여 여어보니 구츠도 막심(莫甚)하다. 좌편(左便)은 칩실(冊室) 측간(廁間) 압호로 마구(馬廐) 격벽(隔壁) 악취(惡臭)가 울입호나 구경의 욕심(慾心)으로 시종(始終)을 보려호니 전후(前後) 차례(次例) 점고절츠(點考節次) 고을마다 호 가지라 차례로 기생(妓生) 점고 용티(容態)도 볼 것 업고 복식(服色)도 괴괴(奇怪)하다. (『금행일기』, pp.63~64)

위 예문을 보면, 관아의 기생점고를 구경하는 이는 은진 송씨 뿐만이 아니다. 다 각각 틈을 얻어 숨어서 봤다는 대목에서 은진 송씨와 몇 명의 여성들이 함께 구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은진 송씨가 이들과 함께 기생점고를 구경하는 곳은 옆에는 측간이 있고 앞에는 마구간이 있어 악취가 심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진 송씨와 일행은 기생



점고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서도 틈을 얻어 숨어서 구경한다. 이 여성들이 아침부터 모여서 몰래 숨어 기생점고를 구경하는 모습은 재미난 상황을 상상하게 해주며, 구경하고 싶은 욕심과 같은 여성이지만 사회적 역할이 전혀 다른 관아의 기생들에 대한 호기심을 보여준다. 그래서 작자는 자신의 행위가 구차하게 느껴지지만 ‘구경의 욕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게 되는 것이다. 숨어서 구경했다는 것은 허락 받지 못한 구경이었음을 의미한다. 은진 송씨는 허락받지 못한 구경을 하기 위해 구차함도 무릅쓰고 욕심껏 행동한 것이다.

쌍계스(雙溪寺) 지척(咫尺)이요 총벽암(總碧岩) 금벽청(金碧靑)니 십  
니(十里) 안밖 된다. 허나 여편너 이 구경도 꿈인가 의심(疑心) 허니 이 밧  
슬 더 브랄가. 일기(日記)로 흐엿다가 편친(偏親)기 보니즈고 심등(心中)  
의 별넛던니 도장(閩中)의 락인 몸은 드나 나나 갑혀 드러 구초(苟且)히  
은신(隱身)허여 보는 거시 분명(分明)홀가. (『금행일기』, pp.87~88)

한편, 가족들과 관아 밖으로 나간 은진 송씨는 쌍계사나 총벽암을 지척에 두고도 마음대로 구경하러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여편네가 이 정도 구경하게 된 것도 꿈 같은 일이므로 더 바랄 것이 없다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런데 은진 송씨는 곧바로 규중에서나 규중 밖에서나 매인 몸이라 구경도 구차하게 숨어서 하니 구경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은근히 불만을 토로한다. 이때, 은진 송씨가 말하는 ‘은신(隱身)’은 다시 한 번 기생점고 구경하던 때를 떠올리게 하는데, 기생점고를 구경했다는 자체로 만족할 수 없으며 구경하고 싶은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며 자세하게 보고 싶다는 작자의 내면 심경을 감지할 수 있다. 즉 은진 송씨는 이번 여행이 규중의 부녀자에게 만족할만한 것이며 고마워해야 할 상황이라는 규범적인 생각과 더욱 자유롭게 마음껏 구경하고

싶다는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아직 눈에 띄게 표출된 것은 아니었다.

희한(稀罕)흔 조흔 구경 즈세(仔細)히 다 못보고 기회(期會) 업시 떠나려니 심중(心中)이 아연(啞然)하다. 만일의 남아(男兒)런들 팔도강산(八道江山) 두루 노라 북니산(蓬萊山) 불노약(不老藥)과 삼신산(三神山) 장생초(長生草)를 아모조록 광구(廣求)하여 양친(兩親)과 효양(孝養)하고 연연익수(延年益壽) 만년세(萬年壽)를 북두성신(北斗星辰) 축원(祝願)하고 문필(文筆)이 강하(江河) 갖고 출장입상(出將入相) 조달(早達)하여 이현부모(以顯父母) 할을 거살 전생(前生)의 죄중(罪重)하여 규합(閨閣)의 띠인 몸이 스스(事事)의 원(願) 맞기라 자취가 무어시며 생낙(生樂)이 었더흔고 (『금행일기』, pp.90~91)

그런데 여행이 끝나고 공주 관아로 돌아갈 때가 되자, 은진 송씨는 자신이 ‘만일에 남아런들’ 팔도강산을 돌아다녀 불로초를 구하고, 입신양명하여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규중에 매인 몸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은진 송씨의 한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효도를 할 수 없는 안타까움보다는 바로 이어지는 뒷이야기에 무게가 실리는바, 결국 세상을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는 처지에 대한 한탄이라고 볼 수 있으며, 토로의 강도가 이전보다 한층 강해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듯 여행 체험은 규중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의령 남씨의 상상적 체험이 한편으론 여행으로 인한 순정한 충일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여행을 통한 자유의 경험과 규중의 부녀자라는 현실과의 괴리 사이에서 부자유한 현실을 누르면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의령 남씨가 남편에게 여행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작자의 내면적 갈등이 구체성을 띠

고 드러나는 것이다. 은진 송씨 역시 가족들과 뱃놀이를 하고 공복루를 구경하면서는 잘 드러내지 않았던 답답한 심경을 구경을 끝내고 돌아가야 할 때가 되자, 마음껏 구경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효’라는 규범적 가치관에 기대어 토로한다. 의령 남씨와 은진 송씨가 여행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상상적 체험을 통한 박장대소와 자기 현실의 토로라는 심리적 양상의 근본에는 자유롭기를 바라는 욕망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교적 전통에서 여성들의 정체성은 대체로 가족 관계 안에서 규정되어 왔기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나’는 드러내기 어려웠다. 그런데 여행을 통해 나타나는 비일상적 자아의 또 한 양상으로 개인으로서의 ‘나’의 발견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이부인기행가사』가 있다. 『이부인기행가사』는 작자미상<sup>6)</sup>으로 필사본의 앞부분이 소실되어 여행의 동기와 출발지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대설이 난박하니 광풍이 균속흐기’와 같은 표현에서 여행의 동기를 추측해보건대, 계절이 겨울인 것을 보아 여행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또, 작품 말미에 ‘홍단을 하딴흔들 스친디심 업슬손가 (...) 학발냥친기 전흐야 뵈을시절이 이실가 흐노라’<sup>7)</sup>라고 한 것으로 보아 친정을 다니러 갔다가 시택이나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여정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또, 앞의 두 여성과는 달리 여행의 동행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가족들과 동행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바로 이 사실이 이부인으로 하여금 앞의 여성들과는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6) 임기중은 『역대가사문학전집』에 『이부인기행가사』의 작자를 광주 이씨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수경·유정선(『<이부인기행가사>에 나타난 19세기 여성의 여행체험과 그 의미』, 『한국고전문학연구』 4(2002), p.317)은 『이부인기행가사』의 작자가 광주 이씨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7) 임기중, 앞의 책, pp.61~62.

은진을 더위잡아 대촌뒤홀 지낸길의 제뇌손을드러 저거시 미록이다 어와 네 어인고 네 근본 내 모르며 싸으로서 소사나 안잘줄 모르거든 흥보올 어이홀고 낭수의 공역인가 화옹의 슈단인가 신장을 의논하면 천척이 나물거시오 몸새귀를 헤아리면 열아름이 니물너나 무좌로 다은 가시 구름속 곱초이고 흰들노 무은엇게 구소의 다향는듯 천강상노를 슬게장 바다먹고 남천북국은 눈알뿔 두어시니 옥경선회를 몇번이나 지경옥익을 경작을 언마나 먹엇관디 천천만급 디내드록 죽을줄 모르는다 (『이부인기행가사』, pp.36~38)

이부인은 은진미륵을 보며, 그 키가 천 척이 넘을 것이며 미륵이 쓰고 있는 갓이 구름 속에 감춰질 만하다면서 그 거대함을 표현했다. 또 경작을 얼마나 먹었기에 세월이 지나도 죽을 줄 모르냐며 은진미륵을 향해 말을 건네고 있다. 이때, 이부인은 은진미륵을 ‘너’라고 부르며, 은진미륵을 본 느낌을 개성적으로 표현해낸다. 즉 이부인은 은진미륵을 하나의 경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대신 ‘나’와 ‘너’라는 친근한 관계를 설정하면서 개성적인 시선으로 은진미륵을 보고 있다. 이부인의 여행에서는 앞서의 여성들이 보여준 내면의 갈등이라든가 토로가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이부인이 가족과 분리되어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일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하고 있는 ‘나’와 내가 보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8)</sup> 의령 남씨가 동명의 일출을 묘사하는 장면이나 앞으로 보게 될 금원의 여행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부인의 ‘나’의 개성적인 시선의 발견은 여

8) 김수경·유정선은 『이부인기행가사』가 『부여노정기』, 『금행일기』와 비교했을 때 본격적인 의미의 기행가사라고 했다. 이 작품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가족 또는 한 집안의 성원으로서의 전체성과, 하나의 개별적 주체로서의 개체성이라는 상호대립적인 지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부인기행가사』에서 특이할 만한 점이 규방가사의 흐름 위에서 전체성 속에 함몰되어 있던 ‘나’가 의식의 전면으로 떠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수경·유정선, 앞의 논문.

정 속에 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체험인 것이다.

앞의 세 여성들이 가족과 관련된 일로써 여행의 동기를 부여받았을 수 있었다면 김금원은 여행 동기의 자발성에서 차별을 갖는다. 『호동서낙기』의 여행체험은 크게 김금원의 혼인 전과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여행은 금원이 혼인 전 1830년에 14세의 나이로 남장(男裝)을 하고 떠난 것이었는데, 우리는 금원이 밝히고 있는 여행의 동기 및 필요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늘이 기왕에 내게 인과 지의 본성과 귀와 눈의 형용을 주셨으니 어찌 홀로 요산요수하여 보고 듣는 것을 넓힐 수 없단 말인가. 하늘이 기왕에 총명한 재주를 주셨으니 문명한 나라에서 일을 성취할 수 없단 말인가. 기왕 여자가 되었으니 집안 깊숙이 문을 닫아 걸고 경법을 삼가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기왕 한미한 집안에 태어났으니 형편을 좇아 분수껏 살다가 이름이 없어져 세상에 이름을 날리지 못하는 것이 옳은가. (...) 내 뜻은 결정되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나이에 강산의 승경을 돌아다녀 보고 증점의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 언덕에서 바람이나 쇠이고 글이나 읊 으면서 돌아오는’ 일을 본받고자 한다면 성인께서도 또한 마땅히 그 일에 찬성하실 것이다.<sup>9)</sup>

금원은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스스로에게 여행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금원 자신이 총명한 재주를 가졌으므로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요, 형편에 따라 분수껏 살다가 이름을 날릴 수 없게 되는 일은 옳지 않으므로 ‘스스로 금원이라 호’<sup>10)</sup>하고 규방에서 나와 총명과 식견을 넓히기 위해 여행을 떠나겠다는 것이다.

9) “天既賦我以聰明之才，獨不可有爲於文明之邦耶。既爲女子，將深宮固門，謹守經法，可乎。既處寒微，隨遇安分，煙沒無聞，可乎。 (...) 則吾志決矣。迨此未笄之年，周覽江山之勝，欲效曾點，浴乎沂，風乎舞雩，詠而歸，則聖人亦當與之矣。”(p.423)

10) “自號金園”(p.423) 여기서 ‘金園’은 ‘錦園’의 오기(誤記)인 듯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행을 떠난 금원은 어떤 형태의 여행을 하게 되는가. 금원이 선택한 여행지는 금강산과 관동팔경, 그리고 한양이었다. 그런데 금원이 왜 이 곳을 여행지로 택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금원이 문면에 밝히고 있는 것은 없지만 그녀의 문제의식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금강산과 관동팔경은 금원이 살았던 원주와 거리상 가까웠는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사대부 문인들에게 각광받던 여행지라는 점이다. 많은 사대부 문인들은 금강산에 한 번 오르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여겼으며, 그 여행 기록도 상당수가 전하고 있다. 금원은 그들처럼 금강산을 여행지로 선택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조선후기 중인 여성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대부 남성의 여행을 본보기로 삼았던 것이다.

여행을 떠난 금원이 주로 본 것은 자연경관과 이름난 사찰들이었다. 금원은 여행을 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면 시를 읊었고, 바위에 제명(題名)을 했으며 사찰의 유래에 대해 들은 바를 꼼꼼히 기록했다. 또, 금원은 제천 의림지에서 먹은 회를 송강(松江)의 농어 맛과 비교했고, 순채를 먹으며 장계웅을 떠올렸다.<sup>11)</sup> 단양에 가서 선암(仙巖)을 보고 상산(商山)의 네 노인의 고사<sup>12)</sup>를, 불지암에 가서는 이태백을 이야기했다.<sup>13)</sup> 그 외에도 도연명, 소동파, 여와, 장자, 초나라 영왕과 진나라 시

11) 進泊漁磯，捐青蚨而換白魚，切鱸啗之，松江四鰓，恐未必勝此也。且求葦菜，尋池邊一草屋，主婆歡迎之，教而服葦之法，暫入熱水，和五味子，水味甚清淡。未知張季鷹所憶，果此葦否也，而亦覺爽喉。(p.423)

12) 轉往丹陽，入青山谷口，歷覽上中下仙巖，巖如碁局，黑白点点相雜，兩頭有老人對局之形，名以仙巖，蓋以是也。神仙之蹟，自古靈異，商山四皓，圍碁山上，一出其脚，未聞更入商山。(p.424)

13) 歷獨木朽橋有佛指巖。千尋絕壁，立於半空，壁面極廣，而刻懶翁像，充滿其中，魁然巖偉，凜然可畏。名曰妙吉祥。路傍壘石築臺，臺上有光明臺，卽祭供燃燈之具也。傍有銀河一道，層層下布散，若干絲掛如素練，若使李謫仙觀此，則廬山未必勝此也。(p.428)

황제 등 역사적 인물들을 여행 중에 떠올렸다.<sup>14)</sup> 금원이 여행을 하면서 한 일련의 행위들과 여행 기록에서의 전고(典故)의 인용 및 시의 삽입, 그리고 한자의 사용은 남성들의 유산기(游山記)와 그 형태가 닮아 있는 바, 이것은 금원 자신을 사대부가 여성을 비롯하여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과 차별화하기 위한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세 여성들이 여행을 통해 비로소 자신들의 새로운 욕망을 확인했지만 그 욕망을 맘껏 실현할 수 없는 처지에 직면했다면, 금원은 여행 이전에 이미 자신의 처지에 대한 뚜렷한 자각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중 인층이고 게다가 여성이라는 이중의 한계상황은 금원에게 이 같은 문제 의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던 것이다.<sup>15)</sup> 또한 금원이 일반적인 여성 교육과는 다르게 경서와 사서를 통한 문자 교육<sup>16)</sup> 을 받을 수 있었던 환경은 금원의 문제의식을 여행의 실현으로까지 나아가게 한 또 다른 힘이 되었던 것이다.

금원은 금강산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이제 내 장한 관광으로 숙원을 이루었으니 이제 가히 멈출만하다. 다른 본분으로 돌아가서 여공에 중사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sup>17)</sup>라고 했고, 곧 결혼을 한다. 이후 금원은 의주 부윤이 된 남편을 따라 의주로 여행을 하게 되었다. 이때, 금

14) 금원이 많은 역사적 인물들과 전고들을 인용했으나 이것이 반드시 여행 중에 했던 생각들이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금원이 처음 여행을 했을 때는 1830년인 14세이고 『호동서락기』를 탈고했을 때는 1850년경으로 35세 때 일이기 때문이다. 즉 여행의 기억이 20년 동안 침식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5) 조선후기에는 중인들의 문학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였다. 따라서 금원도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실제로 금원은 윤초, 경산, 죽서, 경춘과 함께 시사(詩社) 활동을 했던 듯하며, 이것은 여성 한시사에서 최초의 시사 활동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금원과 교류했던 여성들은 모두 양반의 부실인 바, 신분적인 동질감이 이 여성들의 모임을 가능케 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16) 未幾年，畧通經史，思效古今文章.(p.423)

17) 今余壯觀，庶償宿昔之願，斯可止矣. 還他本分，從事女工，不亦可乎.(p.437)

원은 의주 부윤의 아내 된 자격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나눠 수행하는 면모를 보여주는데, 관부의 정책적인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간섭할 바가 아니라 하면서도 관아 내에서 청탁을 받지 못하게 했다<sup>18)</sup>는 표현에서 규범적인 여성의 역할보다는 공적 활동의 연속선상에 놓인 자신의 모습을 부각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금원은 여행을 통해서 여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했다. 확실히 금원은 다른 사대부 여성들에 비해 여성의 처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조선후기에 여성에게 요구되는 규범적인 역할을 거부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다. 금원이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의식하고 그 극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시대를 넘어선 진전된 의식세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금원이 사대부 남성성을 역할 모델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의 한계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 안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여행은 조선후기 여성들로 하여금 유교적 규범에 억압되고 그것을 체화함으로써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욕망을 일깨우도록 했다. 또, 금원은 여성이라는 자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편으로 여행을 선택했던바, 여행이란 여성들에게 내재돼 있는 비밀상적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고 표출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 2.2 규범적 여성 자아의 재확인

조선후기 여성들은 대부분 가족의 도움에 힘입어 여행을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성격의 여행이 있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으로는 『금행일기』와 『부여노정기』가 있다.

18) 本府在兩國之界，爲西門鎖鑰，而物衆地大，財貨殷富，故干囑甚多。至若官府政令，非內衙所當于涉，而如或不自檢飭，一聽所囑，則其醜謗之貽累，不可不念。故嚴飭奴婢，不通外人。(p.438)



앞 장에서도 보았듯이 『금행일기』에서 은진 송씨는 여행 체험 중 규범에서 이탈적인 면모를 보여주어 흥미로웠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족에 강한 애착을 보이는 은진 송씨를 발견할 수 있다.

㉠ 맛덕 년치(年齒) 생각하면 이모지연(二毛之年) 되어서나 청고(淸高) 상냥하니 옥분(玉盆)의 괴화(奇花) 갖고 큰 딸여(姪女)의 화안무빙(花顏霧氷) 이십춘광(二十春光) 갖 넘어서 북티제미(百態諸美) 완전(完全)하여 추턴망월(秋天望月) 버러앗는 듯 (…) 십삼세(十三歲) 종손(宗孫兒)는 나귀 타고 압히 가니 종가딕(宗家宅) 쇼중아(所重兒)로 인기(人氣)도 출뉴(出類)하고 반악 선룡(仙容) 괴이(奇異)헌디 (『금행일기』, pp.70~71)

㉡ 압히 가는 저 선둥(船中)은 포진(鋪陳) 화병(畫屏) 정제(整齊)헌디 싱달(甥姪) 손 김진스(金進士)와 족하 손 대좌(對坐)하여 풍화(豐和)헌 조흔 풍치(風采) 춘풍(春風)이 화창(和暢)하여 만물이 부싱(復生)는 듯 화기(和氣)가 만선(滿船)헌디. (…) 뒤히 오는 주중(舟中) 안은 가운데 간을 막아 포진화병(鋪陳畫屏) 다 갖헌디 다 각각 설시(設施)하여 옷 간은 완장(阮丈) 횡츄(行次) 일가(一家) 노인 더좌(對坐)하여 강산 경치 완상(玩賞)헌스 좌와(左右)가 적적하고 통인(通引) 군노(軍奴) 슈삼인(數三人)이 심심이 되서시니 전선(前船)만 바라 보아 정혼(精魂)을 일헛도다. (『금행일기』, p.77, p.81)

위의 ㉠은 금강으로 뱃놀이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가족들을 나이 순서대로 보여주는 부분이며 ㉡은 뱃놀이를 하면서 본 가족들의 모습이다. 은진 송씨는 뱃놀이 떠나기 전의 기대감이나 설렘보다는 가족들의 준비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뱃놀이를 하면서도 경물에 대한 묘사나 시원함을 표현하기보다는 가족들의 동태에 집중한다. 이 외에도 은진 송씨는 자손의 수가 많음을 강조하며 가문의 번성을 자랑하였고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족 구성원들의 출중함을 표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이렇듯 가족의 동행은 여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규범적인 자아를 재확인하게 한다. 이것은 의령 남씨<sup>19)</sup>와 이부인, 금원이 가족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여행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던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은진 송씨와 외부 세계 사이에 있는 가족은 은진 송씨의 시야를 가리면서 그 시선을 가족으로 향하게 만든다.

한편, 이 여행은 은진 송씨에게 가족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

군조(君子) 회시(回示) 관행초(官行次)는 슈삼일전(數三日前) 문져 ㅎ 시고 우리 일행(一行) 추후(追後) ㅎ니 슈일(數日) 지격(至隔) ㅎ엿도다. (….) 불초(不肖) 불인(不仁) 나 ㅎ나히 부지(不才) 부덕(不德) 참괴(慙愧) ㅎ니 (….) 삼탕(蓼湯) 양죽 연속(連續) ㅎ니 존당(尊堂)의 잡스옵고 삼탕 일기(一器) 드러다가 동서(同婿)님이 극권(極勸) ㅎ와 날 먹으라 슈오시니 지삼(再三) 추탁(推託) 불득(不得) ㅎ고 민면(憫面) ㅎ여 마시오니 허다(許多) ㅎ 일행(一行) 중의 날만 홀노 먹이시문 노인도 아니로디 포병(抱病) ㅎ 연고(緣故)로다. (『금행일기』, p.50, p.69, p.75)

위 예문에서 보면, 작자의 남편은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이가 없었던 자신에 대해서는 불초불인하고 부재부덕하다며 자책하고 있다. 또, 동서가 시어머니의 탕약을 은진 송씨에게 권해 먹이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은진 송씨의 발언으로 짐작컨대, 가족 내에서 은진 송씨의 위치가 안정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

19) 의령 남씨의 여행은 남편과 함흥 관아의 기생 및 노비들과 함께 한 것이다. 은진 송씨처럼 시댁 쪽 가족들, 즉 작자보다 위치가 높거나 대우해야 할 가족들과 여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에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비록 남편이 함께 있었지만, 은진 송씨가 남편에게 여행을 요청한 상황이나 남편이 허락한 정황으로 봐서 작자와 남편의 관계가 유연했던 것 같다.

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애착어린 시선은 또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데, 규범적인 여성으로서의 당위적인 측면이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가족 내에서의 불안정한 위치에서 안정적인 위치로 편입하고 싶다는 선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여노정기』의 연안 이씨 역시 가족과 함께 1800년, 65세의 나이에 안동 하회에서 부여로 가는 체험을 했다. 연안 이씨의 여행 체험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여로 가는 노정이 중심이며, 가족행사에 대한 간단한 언급과 2년 후에 다시 아들이 홍문관 수찬에 제수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다.

연안 이씨는 안동 하회에서 부여로 가는 여정을 지명을 들어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에 가서 -을 구경하고, -에 가니 -이 어떠하다’는 식의 서술은 노정기적 서술<sup>20)</sup>로서 작자의 개성이 드러나기 어려우며 화자의 여행 체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도 어렵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앞서 여성들이 다양한 방식과 개성적인 표현으로 여행 체험을 서술했던 것과는 다른 점이다. 지금까지 조선후기 여성들에게 여행 체험이 특별한 경험이었음을 확인했던바, 연안 이씨의 노정기적 서술방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도 연안 이씨에게는 여행 자체보다는 아들에 의해 부여로 가게 되었다는 그 동기가 감격스러운 일이었던 듯하다.<sup>21)</sup>

부여가 작자의 고향이기도 한바, 작자에게 부여로 가는 여정은 ‘사십년 막힌흉금 이제야 티이거다’라 하여 사십 년 동안 매여 있던 몸이 규방을 나왔다든 일차적인 의미 외에도 한미한 기분에 시집을 온 후 사십 년

20) 장정수, 『금강산 기행가사의 전개 양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2000), p.112.

21) 정조 18년, 1794년에 부인의 아들 태좌와 종질인 상조가 같은 해에 급제하였는데 정조가 그것이 서애 유성룡의 음덕임을 기려 사람을 시켜 하회에 가서 치제하게 하였다.(정조실록, 18년, 갑인 2월 병술조 참조) 이 날 연안 이씨가 기뻐하며 『쌍벽가』를 지은 것이다.

동안 고생했고 이제야 그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이중적인 의미의 해방감으로 읽을 수 있다. 즉 『부여노정기』 탈고 당시 연안 이씨의 나이가 66세(1802년)였다는 것과 그 외 전기적 사실들<sup>22)</sup>을 바탕으로 유추해 본다면 연안 이씨는 한미한 가문에 시집을 와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 가문을 회생시킨 훌륭한 어머니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은진 송씨와 연안 이씨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문 내에서 대조적인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은진 송씨의 가족을 향한 선망의 시선과 스스로를 비하하는 시선은 모순적인데 은진 송씨의 심리상태가 분열적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은진 송씨에게는 자신이 번성한 가문의 일원이라는 안도감과 가문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열등감과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는 여행 중 숨어서라도 구경하고 싶은 욕심과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조심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반면, 연안 이씨는 쇠락한 가문으로 시집온 후 40여 년 동안의 고생 끝에 아들을 과거에 급제시켜 가문을 일으킨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고 가문 내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했다. 따라서 부여로 가는 여정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자부심에 바탕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경물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란 연안 이씨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다.

두 작품을 통해 유교적 규범이 부여한 어머니, 며느리로서의 여성적 역할과 그것을 체화하고 있는 여성 자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가문 내에서의 위치에 따른 여성 작가들의 심리적인 만족감과 불안감 등을 읽어낼 수 있었다. 가족과 함께한 여행은 여성들이 규방을 벗어났어도 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작용했던 것이다.

22) 김수경, 앞의 책, 앞의 논문, pp.100~101.

### 3. 여행, 그 이후

여행은 돌아옴을 전제로 한다. 여행 체험을 했던 여성들은 각자의 규방으로 돌아왔다.

㉠ 성주(聖主)의 은덕이 땅극하와 이런 대지(大地)에 와 호의이호식(好衣而好食)을 하고, 동명 귀경대(東溟龜景臺)와 운전(雲田) 바다와 격구정(擊毬亭)을 갖추 보고, 필경(畢竟)에 본궁(本宮)을 보옵고 창업태평(創業太平) 성군(聖君)의 옥택(玉宅)을 사백 년 후에 이 무지(無知)한 여자로서 구경하니, 어찌 자연(自然)하리요. (『동명일기』, p.39)

㉡ 촌페로 말(馬)게 나려 집을 드러가니 물식(物色)이 의구(依舊)하고 구경군 집이 좁아 겨마다 인스(人事)하니. 비비(婢輩)들 분분하여 석식(夕食)을 준비(準備)하고 내외(內外)로 너란 가정(家庭) 진심 수직(守直) 괴특(奇特)하다. (...) 월명선희(月明星稀) 맑은 경의 오죽(烏鵲)이 남비(濫飛)하니 비교(比較)하기 부당(不當)하나 조맹덕(曹孟德)의 시(詩)를 의와 믿음 쾌창하고 양가편친(兩家偏親) 친필하셔(親筆下書) 양수(兩手)로 받드러서 중심(中心)이 든든하여 지삼(再三) 보고 반가오나 친안(親顔)이 의희(依稀)한 듯 스친지회(思親之懷) 일양(一樣)이니 하일하시(何日何時) 승당(承當)하여 슬하(膝下)의 현배(見拜)하고 여전(如前)이 즐겨 볼가. (『금행일기』, pp.105~106, pp.114~115)

㉢ 흥딘을 하덕흔들 스친디심 업슬손가 죠흔 석월의 믿음도 돌디업니 화로 철년의 정위작이 도라오니 니친을 미양하랴 죠흔 바람부는 희의 박오아스하며 박오나의하야 학발냥친기 전하야 뵈을시절이 이실가 흐노라 (『이부인기행가사』, pp.61~62)

㉣ “여아의 남장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며, 하물며 인간의 정은 무궁할 뿐이다. 군자란 충족한 것을 알면 능히 멈출 수 있으므로 절제하고 지나치지 않는다. (...) 이제 내 장한 관광으로 숙원을 이루었으니 이제 가히

땀만하다. 다른 본분으로 돌아가서 여공에 종사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드디어 남북을 벗고 옛날 아직 시집가지 않은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호동서낙기』)<sup>23)</sup>

위 예문은 여성들이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한 생각과 행동을 보여준다. 의령 남씨는 여행 체험이 성주의 은덕 덕분이라고 했고 은진 송씨와 이부인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김금원은 여성의 본분인 여공에 종사하겠다고 했다. 여성들의 이와 같은 모습들은 유교적 규범 안으로 안정적으로 복귀했음을 보여준다.

여성들은 여행 이전의 자리로 그대로 돌아온 듯이 보인다. 이 여성들에게서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남녀의 역할·공간이 분명하게 구분된 조선후기에 사대부가의 부녀자가 일시적이지만 규방을 나와 새로운 공간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여행 체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여행 체험이 당대의 여성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쉽지 않은 경험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이러한 인식이 여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자신만의 여행 체험이 되도록 작용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으로 돌아온 여성들이 표면적으로는 더욱 규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진정 아무 변화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변화가 다분히 내면적인 것이어서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이 여성들을 변화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들로 하여금 글을 쓰도록 만든 결정적인 동인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여행이 끝난 후 여성들은 기록의 욕구를 느꼈던 것이다.

23) “女兒男裝의非常事, 況人之情無窮已焉. 君子知足而能止, 故節而不過. (….) 今余壯觀, 庶償宿昔之願, 斯可止矣. 還他本分, 從事女工, 不亦可乎. 遂脫去男服, 依舊是未笄女子也.”(p.437)

㉠ 삼월(三月) 초순(初旬) 금아(錦衙) 가서 스월(四月) 초생(初生) 환가(還家)한 후 심회 울적(鬱寂)하고 스친심회(思親心懷) 지향(指向)업서 금행일기(錦行日記)를 하여 노친(老親)니귀 뵈옵즈고 우연이 시작을 하였더니 (...) 왕스횡설(往事橫說)하여 실상 일기(日記)도 아니요 외즈낙서(誤字落書)의 성즈(成字)를 못 하였시니, 업시허려다가. 두 곳 노친귀 뵈와 잠시(暫時) 소일(消日) 되시고 웃즈오실가. 역시 위친(爲親)홀 일이니 (...) 두곳 노친니 감(鑑)하신 후는 슈지(休紙)로 업시허라 호오니, 남 보이지 말오소서. (『금행일기- 은진 송씨 발문』, p.116)

㉡ 신스 구월 초 구일귀 고이 펼쳐흐나 본전즈 굿고 무식하기 뜻 아디 못호무로 말이 되지 아니흐나 두고 심심홀 적 과적이나 호오리라 (『이부 인기행가사』, p.62)

㉢ 생각건대 지난 일 지나간 경관은 바로 눈 깜짝하는 한순간의 꿈일 뿐이니, 만약 문장을 써서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오늘의 금원이 있었음을 알겠는가. (...) 마침내 붓을 들어 간략하게나마 유람의 전말을 기록하니, 소위 열 가운데 하나만 남긴 것이다.<sup>24)</sup> (『호동서낙기』)

위 예문은 여행에서 돌아온 여성들이 자신이 왜 여행 체험을 기록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이다. 은진 송씨는 공주에서 돌아온 후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울적하여 우연히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읽고 부모님이 웃게 되시면 그것이 곧 위친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부인 역시 은진 송씨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두 여성은 ‘위친(爲親)’이라는 목적으로 자신들의 글쓰기를 정당화하고 있다. 또, 작품의 독자를 부모님과 가족 안으로 한정하여 자신의 글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경계했다. 『부여노정기』도 그 독자는 가문 안으로 한정 되어 있음을 짐작

24) “惟其往事過境，其瞥然一夢耳。苟無文以傳之，則孰有知今日之錦園者乎。 (...) 遂一笑援筆，而略記遊覽顛末，所謂存十一於焉。”(p.442)

할 수 있다.

반면, 금원은 글쓰기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서 남기지 않는다면 자신이 존재했음을 모를 것이므로 이름을 남기기 위한 행위로서 글을 쓴다는 것이다. 다른 여성들이 독자를 대부분 가족으로 상정하고 글을 썼다면 금원은 그보다 넓은 범위, 즉 가족 외의 불특정 다수의 독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러한 금원의 태도는 자신이 일반 여성들과는 다르다는 의식에서 비롯한다. 오히려 자신이 받은 교육 수준과 재능 등이 사대부 부녀자들보다 앞선다고 자부하며 동시에 그 지점에서 여성·중인층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했던 것이다. 따라서 금원은 사대부 남성을 역할 모델로 하여 여행을 떠났고, 글쓰기와 그 목적이 남성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대부 여성의 글쓰기는 오직 부모님과 가족을 위한 것이었을까. 이러한 표면적인 행위 이면에 있는 여성 글쓰기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조차 조심하고 경계해야 했던 조선후기의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조선후기에는 여성의 글쓰기가 보편적이지 않았으며 유교적 규범의 잣대에서 보자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었다. 『내훈』에는 이천 선생의 어머니 후부인이 “글을 무척 좋아하였으나, 그러면서도 문장 짓는 일만은 하지 않았다”<sup>25)</sup>며 이를 본받을 내용으로 삼았고, 여성들에게는 단지 교훈서를 읽는 것 정도가 공식적으로 허가되었을 뿐이었다. 다시 말해 여성들은 말하기나 글쓰기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텍스트의 창조자가 아니라 만들어진 텍스트의 수동적인 독자로서의 역할 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이들 여행 기록은 여성 작가들의 다른 장르의 작품들과는 차이를 가진다. 여행 기록은 외부 세계를 경험했

25) “好文而不爲辭章.”『내훈』, 앞의 책, p.39.



던 여성들만이 쓸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규방을 벗어나 바깥 세계를 경험한 여성들은 내면의 새로운 욕구를 느꼈고, 동시에 욕구를 표출하던 감추던 규범적인 세계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다. 이때, 여성들은 규방 부녀자로서 부자유스러운 처지를 인식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진다. 이렇게 외부세계에 대한 경험과 함께 자신의 내면세계를 확인하는 체험에서 비롯한 여성의 여행 기록은 단순한 여행 기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 후기 여성의 여행 기록에서 여행이라는 체험의 가치가 극대화되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자아를 재발견하는 행위로서의 글쓰기며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글쓰기인 것이다.<sup>26)</sup>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후기 여성의 여행 기록은 개인인 ‘나’가 어떤 특징적인 경험 등을 통해 자신이 존재했음을 기록한다는 의미로 ‘실존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여행 기록에는 여행의 경험과 함께 개인사가 나타나기도 한다.<sup>27)</sup>

조선후기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스스로를 개인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이전에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해 왔다. 그런데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조선후기의 여성들이 여행 체험을 하고 그

26) 김성례, 『여성의 자기 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또 하나의 문화 9호(1992), p.124.

27) ‘개인사의 표출’은 조선후기 여성의 여행 기록의 표현적인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여행은 주로 가족에 의해서 이뤄졌다. 때문에 여행을 하면서도 가족사를 떠올리며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사의 표출은 이 여성들의 여행이 일상과 비일상적인 접점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부인과 금원은 가족과 함께한 여행이 아니었으므로 다른 여성의 여행 기록에 비하여 가족사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이 외에도 ‘인상 중심의 여정 구성’, ‘과장된 표현’, ‘여성적 비유’ 등의 특징이 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참고, 『조선후기 여성 기행문 연구』(인하대 석사논문, 2006) 참고.

경험을 기록하면서 개인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인식했고, 나아가 자신들이 처한 시대적 한계 상황들을 넘어서려고 했다. 여행을 통한 여성들의 글쓰기는 여성들 각자의 생각과 느낌이 서술된 개인적인 행위의 산물이다. 여행 체험의 기록은 여성들이 여행이 끝난 후에도 자신들을 주체적 자아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 4. 여성 기행 양식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조선후기, 규방에 매여 있던 여성들에게 여행은 비밀상적인 체험이었다. 낮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여성들은 탈규범적인 자아를 보였으며 그와 동시에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다시 말해 여행은 여성들로 하여금 부자유한 현실과 자유에 대한 욕망을 인식하게 해주며, 나아가 자기 실존에 대한 기록의 계기를 부여해 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겠다.

이렇게 조선후기 여성들에게 여행이 평생에 있어 한 번도 채 하기 힘들었던 경험이었던 것에 비해 사대부 남성들에게 여행은 통과의례적인 측면이 있었다. 사대부 남성들은 개인적·공적으로 -유람·환유·사행 등- 여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다양한 기행 양식을 만들어 냈다. 또, 여행 기록의 목적이나 태도에 있어서도 사적(私的)인 기록의 차원을 넘어 다음 여행자나 그 밖의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서 상징하여 여행 안내서나 여행지에 대한 보고서 같은 성격을 가졌던바, 여성 여행기록과 변별점을 갖는다.

한편, 여성 여행의 후대적 변모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이전과 이후 여성들의 여행 체험은 그 시·공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한국 사회 속에서의 여성 자아의 존재 양상을 비춰보는 거

울이 된다. 조선후기 이후 개화사상의 유입으로 여성들은 학교 교육의 수혜자가 되었으며 외출도 이전시대에 비해 자유로워졌다. 기차와 전차 등 교통의 발달은 부녀자들의 단체 관광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우리는 국내에서 배움에 한계를 느끼고 해외로 유학을 떠났던 나혜석, 허정숙, 박인덕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여성들은 더 이상 사적 존재로만 남아 있으려 하지 않았으며 이전 시대와는 다른 자아를 발전시켜 나갔다. 조선후기 여성들이 비자발적인 동기로 단기적인 여행을 통해서 발견한 내적 욕망과 규범과의 갈등을 자의식의 성장으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했지만 후대의 신여성들은 현실인식의 변화 및 여행 기획의 확대로 확실히 이전 시대와는 구별되는 여성 자아를 모색하고 발견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본고는 조선후기의 여성 기행문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 좀 더 논의를 발전시켜 비슷한 시기의 동아시아 여성의 여행 체험과 비교 연구를 한다면 여성과 여행에 대한 폭넓은 의미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강한영 교주, 『의유당일기·화성일기』(신구문화사, 1974).

노태조 교주, 『錦行日記』(정훈출판사, 1991).

권영철, 『夫餘路程記 研究』, 『국문학연구』 4(효성여자대학교, 1973).

임기중, 『이부인기행가사』, 『역대가사문학전집』 16(여강출판사, 198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내방가사 I』(1979).

이혜순·정하영 역편, 『한국고전여성문학의 세계』(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김성례, 『여성의 자기 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또 하나의 문화 9호, 1992).

- 김수경·유정선, 「<이부인기행가사>에 나타난 19세기 여성의 여행체험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 나정순 외, 『규방가사의 작품 세계와 미학』(역락, 2002).
- 박혜숙, 「고려속요의 여성화자」, 『고전문학연구』 14(한국고전문학회, 1998).
- 백순철, 「<錦行日記>와 女性의 여행체험」, 『한성어문학』(2003.8).
- 우미영, 「여행과 근대 담론 속 여성의 위치 -여성의 서양 여행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 12(한국여성문학회, 2004).
-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의 작품세계와 시대적 변모양상』(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9).
- 유태일, 「의유당 일기의 작자에 대하여」, 『수필문학연구』(국어국문학회, 1980).
- 이연성, 『意幽堂日記의 文体考』(이화여대 석사논문, 1973).
- 이혜순 외,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집문당, 1997).
- \_\_\_\_\_, 『한국 고전 여성작가 연구』(태학사, 1999).
- 장정수, 『금강산 기행가사의 전개 양상 연구』(고려대 박사논문, 2000).
- 정치영, 「『金剛山遊山記』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 관행」, 『문화역사지리』 15권 3호(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3).
- 조혜란, 「17세기 조선의 규방 현실에 대한 보고(報告)」, 『한국고전연구』 9집(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Abstract**

## Woman's ego shown up at travel writing style of the late Joseon

Lee, Seung-Hee

Late Joseon, the rule of Confucianism was strengthened ever before therefore woman's in and out was repressed. A few women traveling and they leave their writings in despite of restrain situation. The experience of traveling was the most dramatic moment on their whole life escape from their own space, even though most of their traveling was following their husbands or participating the family's ceremony. These unusual experiences make the women express their desire to traveling and shown their 'unusual ego' never shown before.

Nevertheless, traveling with their family was recognized that she was just a member of family and 'reconfirm their status in traditional situation' interacted with their family. In the process of confirmatory reaction, they were in problem between desire to traveling and status in traditional situation.

Women came back safely from the traveling to their usual life. Even though their life was shown very common, but through these travel writings as a basis, I thought 'Woman's ego' had changed qualitatively comparison with before the traveling. Women's travel writing is just about their travel, but it has an implied meaning. Writing is not only the process of finding their ego but also new meaning was created to their life by themselves. In view of the results so far achieved, travel writing works as a 'existential writing'.

**Key words** : Late Joseon, travel writing style, Woman's ego, existential writing

■ 본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1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11월 2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